

제목 :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계약자 행동과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 세미나 개최

- 보험연구원(원장: 한기정)과 한국리스크 관리학회(회장: 이창수)가 공동 주최하고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「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계약자 행동과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」 세미나가 3월 28일(화) 오후 코리안리빌딩 강당에서 개최됨.
 -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는 제1주제 「동태적 보험계약자 행동과 리스크 관리」 발표에서 거시경제 변수와 계약자 특성이 연금해지율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에 대해 논의함.
 - 임태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제2주제 「거시경제 위험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」 발표를 통해 거시경제 위험이 보험해지율 및 보험회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.

< 제1주제: 「동태적 보험계약자 행동과 리스크 관리」 >

다양한 경제환경에서 계약자 행동의 이해는 리스크 관리의 핵심

-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에서 수익성과 건전성에 영향

-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는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와 계약자 특성을 반영한 자료를 이용하여 변액연금과 금리연동형 연금 상품의 해지율을 분석함.

-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될 경우 계약자 의사결정(가입, 유지, 해지, 연금화 등)이 보험회사의 부채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됨.
 -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下 부채가치는 시가로 평가됨.
 -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는 (시가로 평가된) 부채가치의 변동을 심화시킬 수 있음.

- 보험회사는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개발 및 계약자행동의 정량적/정성적 분석을 통한 리스크 관리 필요.
 - 계약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데이터 집적 및 계약자 행동모형의 개발이 요구됨.

〈 제2주제: 「거시경제 위험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」 〉

거시경제 환경변화는 보험 수요 및 계약 유지에 영향

-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모니터링 강화에 힘써야

-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금융·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.
 -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,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사드배치 이슈로 인한 경제보복, 미국의 금리인상 등이 불확실성 확대의 주원인으로 평가됨.
- 임태준 연구위원은 거시계량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거시경제 환경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.
 - 시뮬레이션에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적용됨.

- 첫째, 중국 경제 성장률이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1%p 하락
- 둘째, 리보 금리가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25BPS 상승
- 셋째, 국제 유가가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배럴당 5달러 상승

□ 시뮬레이션 실행 결과, 개인연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해지율은 상승하고 수입보험료 규모는 감소함.

○ 그 변화율(3년 평균)은 다음의 표에 요약된 바와 같음.

3년 평균 변화율	생명보험				손해보험		개인연금
	(비변액) 보장성	(비변액) 저축성	변 액 보장성	변 액 저축성	장 기 보장성	장 기 저축성	
수입보험료	-0.34%	-0.43%	-0.97%	-0.45%	-0.29%	-0.58%	-0.24%
해지율	3.07%	2.97%	2.35%	1.60%	0.45%	3.10%	-
초회보험료	-0.62%	-0.51%	-4.18%	-1.11%	-0.48%	-1.07%	-0.89%
계속보험료	-0.33%	-0.40%	-0.86%	-0.44%	-0.28%	-0.51%	-0.23%

□ 보험회사는 거시경제 위험에 대비하여 재무건전성 모니터링 강화에 힘써야 함.

○ 거시경제 환경변화는 보험수요 및 계약 유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, 이는 보험회사의 가용·요구자본 및 유동성 리스크에 영향을 줌.

<별첨> 세미나 발표자료 각 1부. 끝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kiri.or.kr>